현대사회와 다문화 2014 제4권 1호(1~26)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

김태원*

요약_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다. 다문화연구가 시작되던 1990년대 초기에 다문화연구는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로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거나, 교육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후 서구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결혼이주민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갈등이나 적응, 정체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을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결혼이주민을 주변인으로서의 이방인으로 보고 이들이 한 사회의 문화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의 매개자이자, 잠재적 가치생산자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민의 이방인적 속성은 짐멜의 이방인 이론을 주로 참고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이 이제 더 이상 다문화가족이라는 가족 제도 속의 부분적 존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치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주요어_결혼이주민, 이방인, 주변인, 생활세계, 공간

1. 문제제기

결혼이주민은 '욕망의 공간적 이동(김태원, 2012)'이라는 특성을 지닌,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을 일으키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이를테면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시도한 존재이며, 이들은 생활세계 속에서 능동적 가치변동의 주체로 한 사회의 가치, 제도, 규범과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도되지 않은 생산자'이다.

* 대구가톨릭대, 사회학, taewonart@gmail.com

하지만 결혼이주민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단순히 생활세계의 공간적 이동을 단행한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이며, 한 사회의 가치를 바꾸고 가치의 재생산에—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기여하는 잠재적 가치 생산자이다. 결혼이주민은 새로운 생활세계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러한 확장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 누군가 "결혼이주민은 이방인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일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이방인이다"거나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단선적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주민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기인하는 어떠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미시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결혼이주민의 이주현상이 다문화사회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불러온 것에 대한 관심보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이주를 선택해 이주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가치와 공간과의 연관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치에 대한 연구는 곧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결혼이주민이 합목적적이고 의도된 행위를 한다는 미시사회학적 관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일차적 이주 동기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Hoa, 2014; Loan, 2014). 하지만 이주의 일차적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특정한 행위규범에 접하면서 한국 사회의 '기본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한 사회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신념체계가 바뀌고, 행위의 동기가 바뀌게 되고, 삶의 지향점이 변하게 된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체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지만, 행위의 틀과 세계를 파악하는 척도인 기본 가치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현상은 합목적적 행위를 하는 개인의 속성, 즉 내적 가치로부터 유래한다. 욕망의 공간적 이동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결혼이주민에 대한 미시적 속성을 나타낸 표현이며, 이들에 의해 사회적 행위의 바탕으로서의 공간,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이 교차하며, 변형되어가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은 가치변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주민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 최병두(최병두, 2009; 2011; 2012)의 지리학적 연관성과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결혼이주민을 미시적 관점에서 원주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려면 무엇보다 그들의 내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이러한 욕구가 사회변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이방인으로서 동일한 공간 내에 문화적 이질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결혼이주민은 이른바 동화 또는 적응이라는 형태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한 사회 내에서 소통의 형식으로 뒤섞으며 동질성을 획득하고 생활세계의 구성원으로 되어간다.

결혼이주민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방인', '주변인', '경계인' 등과 같은 이질성에 바탕을 둔 이름이 붙여진다. 결혼이주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획득하려는 삶에의 투쟁, 이질적 삶으로부터 동질성이라는 형식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간다. 이들은 이처럼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이질적 타자로 출발하여 경계 선상에 머물다가 동질적 타자로 바뀌어 간다. 동질적 타자인 이유는 이들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화된다고 하여도 생물학적 특성이나 1차적 사회·문화적 특성은 바뀌거나 없앨 수 없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민이 모국에서 체득한 삶의 양식과 행위규범은 새로운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움직이는 행위의 준거틀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문화적 틀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이식되느냐하는 하는 것 때문이다.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이방인은 내적, 외적 가치가 다른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 그 사회에서 머무는 거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방인은 기존의 고정적 공간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면서 새로운 공간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존재이다. 이들이 이방인이라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민은 단순한 이방인인가? 아니면 한국의 생활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가치의 촉매자인가? 이 연구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 결혼이주민과 생활세계

1) 생활세계

생활세계(Lebenswelt)는 자연과학적이고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일상세계이다. 생활세계가 지속되는 것은 현상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실천적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에 기초한 법칙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내적가치, 삶의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설(E. Husserl)은 유럽의 근대 세계를 자연과학적 전통에 의해 규정된 세계로 규정하고, 이러한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해 규정된 세계라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의하면 근대 자연과학을 통해 보여진 세계는 경험된 세계가 객관화된 결과로 구성된, 과학적 이념에 의해 객관화되고 구성된 세계이다. 하지만 생활세계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삶을 영위해나가는 현실세계이다. 근대의 과학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고, 이러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생활세계는 가상의 세계로 취급되어 구체적인 현실세계가 망각됨으로써,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인간 존재 역시 망각되었다.

후설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선험적 감성의 자연적인 세계다. 생활세계는 직관적 경험의 세계이고, 행위하는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어 형성된 의미의 형성물이다. 객관적인 세계이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타당성에 의해 형성된 세계의 표상이며, 역사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형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행위가 보편적인 행위의 규범양식을 가지므로 개인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생활세계는 보편적인 구조를 가진다(김태원, 2011).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두드러진 규정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생활세계는 선소여된(vorgegeben) 세계라는 점이다. 여기서의 선소여성은 우선 능동적 사유나 판단에 앞서 수동적으로(습관적으로) 항상 주어져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생활세계는 '주관연관적인 세계(subjekt-relative Welt)'라는 점이다. 생활세계는 근본적으로 오직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박인철, 2006).

후설의 '생활 세계'는 주체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ät)'에 의해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주체인 '나'와 객체인 '타자'가 함께 공존하는 상호주관적 세계이다. 이는 곧 두 주체, 주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타자 사이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생산하는 생성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후설의 생활세계는 두 문화 사이에서 상호 조정되고 생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의 간섭을 통한 문화혼종성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치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슈츠(A. Schütz)는 그의 방법론적 기본작업을 통해 후설의 현상학(Phänomenologie)과 베버(M. Weber)의 사회학을 결합시켰으며 현상학적 사회학의 길을 열었다. 베버는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행위이며, 그 행위는 목적 지향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주관적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후설과 더불어 '생활세계' 연구에 크게 공헌한 슈츠는 이러한 베버의 개인행위에 대한 이해를 일상세계와 연관지어 '이해(Verstehen)'란 단순한 외적 관찰을 이해하는 것이나 개인의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처음부터 의미 있는 것으로 주어진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은 타인을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목적을 가진 인간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동기와 의도를 자신들의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공유된 생활세계 속에서 이 이해는 개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김태원, 2011).

슈츠는 베버의 이해사회학이 상호주관성의 구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베버가 이처럼 상호주관성에 연관된 다양한 의미세계의 존재나, 전형화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그의 이해 사회학 연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주체에 의해 의도된 행위는 곧, "개인이 내면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와도 일맥상통하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의 다양한 구성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내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의 변형과 확장, 조작은 사회의 지적저장고(Wissensvorrat)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세계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은 경험된 감각과, 시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질서 지어진 감각표상 등에 의해 고도로 추상화된 구성체(Gebilde)이다. 반면 과학의 세계는 조직되고 제도화된, 공식화된 특정한 지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일반인과 다른 과정적 법칙을 갖는다. 또한 이 과학의 세계는 사회세계에서 구성된 의미의 세계에 근거하는 세계이다.

생활세계는 자연적인 삶의 세계로 개인의 욕구와 가치가 서로 교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세계로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사회'이며, 개인은 이 생활세계 내에서 사회구성원들과 가치를 공유하며 스스로의 삶의 지평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세계는 선소여된 세계상과 현실적 실천이 뒤섞이는 사회이다.

오늘날 결혼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결혼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의 고유한 가치가 새로운 생활세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에 대한 연구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개인적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이다.

2) 결혼이주민과 생활세계

오늘날 민족국가는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이 되었다. 이후 장유유서의 유교적 세계관으로 인해 농촌에 잔류한 농촌총각과 산업화의 결과로 도시로 진출한 농촌여성들의 증가는 결혼하지 못한 농촌총각들을 늘어나게 하였고, 대부분 결혼연령이 지난 농촌총각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도록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하나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견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구성의 변화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야기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금융,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를 접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가치는 곧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생활양식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가치에의 도전으로 인해 새로운 생활양식이 일상을 지배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세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 가치의 와해와 더불어 공생에 대한 절심함과 필요에 의해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화에 의해 생활양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글로컬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사회(김태원, 2011)'로 변해가고 있다.

글로컬(glocal) 생활세계는 오늘날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공간이다. 특수한 사회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개인의 행위와 목적이 실현되고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교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적 폐쇄성과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세계화와 지역화가 교차되고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융합과 병존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체험이 지배하는 복합적 시공

간인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교통과 정보통신망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과거의 소유에 집착하던 행위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체험에 대한 압박과 열망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결혼이주민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경험의 소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개인의 욕망을 자극하여 행위에 새로운 원인을 제공하고 생활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즉 가치변동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결혼이주민은 한국사회의 문화변동 유발자로 떠오르고 있다.

3. 주변인으로서의 이방인과 이주민

주변인은 사회의 중심으로 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나타내는 다의적이고 가변적 개념이지만, 그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주민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주변인은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새로 나온 국어사전, 민중서관, 2000)", 혹은 "오랫동안 소속되었던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위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는 사람(네이버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전에 따라 그 표현양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정의는 실제로 1920년대 시카고대학에서 시작되었던 미국 이민연구, 특히 이주사회학의 소산이었다. 사전에 정의된 주변인은 당시 만들어져 유행했던 'The marginal man'의 번역어였다. 이처럼 주변인으로서의 이주민은 오래전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여기서 정의된 주변인의 성격은 근원적으로 보면 트랜스내셔널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두 문화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가는 하이브리드(Hybrid)적 정체성을 소유한 경계인 내지 혼종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 짐멜은 '이방인'을 '잠재적 방랑자'로 간주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방랑자(der Wandernde)라기보다는, 오히

려 오늘 왔다가 내일도 머무는 사람으로서의 '이방인', 즉 '잠재적인 방랑자(der potentiell Wandernde)'이다. 다시 말해 오고 가는 것이라는 그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 잠재적 방랑자인 것이다(Simmel, 1992).

> Es ist hier also der Fremde nicht in dem bisher vielfach berührten Sinn gemeint, als der Wandernde, der heute kommt und morgen geht, sondern als der, der heute kommt und morgen bleibt – sozusagen der potentiell Wandernde, der, obgleich er nicht weitergezogen ist, die Gelöstheit des Kommens und Gehens nicht ganz überwunden hat(Simmel, 1992:764).

그러므로 이방인은 언제든 또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짐멜은 이러한 이방인의 대표작인 예로 상인(Händler)을 들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집단의 공간적 이동자가 이방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방인은 그가 속한 집단을 떠나 새로운 집단에 소속된 존재이지만, 그 새로운 집단에는 없는 이질적 요소를 가지게 될 때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본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을 새로운 삶의 양식, 가치, 행위규범을 새로운 집단에 이식시키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가치변동은 이러한 이방인과 일탈자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이주민들의 경우는 어느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든지 그 삶을 주변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주변인'의 일반적인 개념은 한 사회나 집단의 가치에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 사회 또는 문화적 집단에서 어느 사회에도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나름대로의 소수집단으로 남아 기존의 사회가치에 대항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주변인일 수 있다. 사회의 중심부에 있던 가치의 생산자도 그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고, 사회의 주변인도 사회의 중심부에 속할 수 있다. 주변인은 두 세계 사이의 변경에서 살고, 때로는 경계를 넘어 두 세계를 오고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두 세계 사이에 그리고 두 세계를 오고가며 행위하고 판단

하면서, 두 세계의 욕망과 행위의 틀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계' 또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세계나 저 세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동시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주변인이 두 세계의 가치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적어도 기존의 내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문화변동을 촉발 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생산자임을 의미한다. 이들은 두 사회나 두 문화적 집단 위로 부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될 수 있다.

주변인은 이 세계나 저 세계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두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이 머무는 두 세계의 주변부는, 항상 그 사회 가치의 주변부로만 존재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의 중심부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 속성을 지닌 것은 짐멜이 문화의 근원이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듯이(Simmel, 1957; 1983), 바로 문화가 인간의 내적 의식으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주변문화를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주민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변인에 속한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이주민 이상이다. 이주민은 한 사회로부터 또 다른 한 사회로 공간적 이동을 하는 개인을 뜻한다. 이들의 이동은 여행과 같은 단기간의 이동이 아니고 이들 중에는 장기적 방문객, 노동이주, 교육과 같은 장기 이주자와 결혼이주자처럼 영구적 이주자도 포함된다. 이들의 특징은 오늘 와서 내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이동과 더불어 문화적 적응에 대한 요구를 받는 문화적 담지자라는 점이다. 이들의 이주국에 정착하면서 문화를 옮기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adaptation)하거나, 동화(assimilation)되거나, 편입(incorporation)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통합(integration)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화화(acculturation)라는 가치의 내면화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은 곧 새로운 생활세계로의 전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민과

문화적 갈등을 겪기 전에 이주민은 그들 개인의 내면에서 스스로 갈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 갈등을 1차적 생활세계로의 전이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나 사회는 자발적인 문화혼용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현상은 다문화 현상이라는 개별문화의 다수적 공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세계의 문화양상을 띠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은 두 문화의 경계를 오고가면서, 두 문화의 경계에서 머물거나 한 문화 속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두 문화를 지나 새로운 사회공간을 형성하는 가치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과 주류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김태원, 2011).

4. 경계적 존재, 새로운 형식의 생산자

결혼이주민은 익숙함 보다는 낯선 것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타자들과 대면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이주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변동 요인들을 제공하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이주국에서 자신들의 의도된 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틀(frame)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기 보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틀에 견고하게 갇혀 있으면서, 이주국에서도 결혼이민자, 이방인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회적 틀은 이들로 하여금 변형된 생활공간을 생산하게 하고 이러한 삶의 양식이 그들이 현존하는 사회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삶의 양식 변화는 짐멜(G. Simmel)이 언급한 “삶과 형식(Leben und Form)”이라는 개념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짐멜의 생철학적 관점을 잠시 빌어보면 인간의 삶은 창조적이며 끝없이 움직이는 속성을 지닌다. 즉 그의 변증법적 삶의 진화는 인간의 삶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삶(Leben)과 형식(Form)이라는 과정을 거쳐 상승하게 된다. 짐멜은 생의 마지막 쯤에 ‘생철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새

로운 학문적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 데, 이때에 그는 주로 베르그송(Henri Louis Bergson)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는 특히 베르그송의 '엘랑 비탈(elan vital)', 곧 '생의 비약'이라는 생철학적인 개념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개념인 '영혼과 삶(Seele und Leben)'이라는 두 개념을 구성한다. 이 '영혼과 삶'이라는 개념은 '삶과 형식' 그리고 '형식과 내용(Form und lnhalt)'이라는 개념들과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형식과 내용'은 그의 사회이론의 핵심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곧 '삶과 형식'이라는 개념적 전환을 거쳐, '삶', 즉 창조적이며 끝없이 움직이는 속성을 지닌 '더 나은 삶(Mehr-Leben)', 그리고 '삶 이상의 삶(Mehr-als-Leben)'이라는 개념적 전환을 하게 된다. 즉 삶과 형식은 '삶-형식-삶'이라는 발전과정을 이루게 되는데, '삶-형식-삶'이란 삶이 항상 고정된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식을 통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삶 이상의 삶'이란 곧 창조적인 삶을 의미한다. 여기서 '창조적'이라는 표현은 현 순간의 삶은 보다 새로운 삶을 위한 이전의 한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성에 의해 삶은 해체되고 다시 통합 되는 데, 이러한 과정 속에 삶이 속해 있는 한은 창조적이다. 이러한 초월적 특성을 지닌 삶을 우리는 '삶 이상의 삶'이라고 말한다.

짐멜에게 있어서 삶이란 곧 정신적 범주의 형식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형식은 곧 삶의 자기의지나 고유한 역동성에 의해서 생기며 고착화되고 자기화 된다. 그리고 반대로 삶 또한 형식을 위해 그 삶의 소재들을 형식 속에 채우고 배열하는 데, 이 배열이 잘 이루어진 상태를 짐멜은 '가치나 의미의 충족'이라 한다. 그러므로 삶에게 형식은 필수불가결한 것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하나의 커다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현존하던 형식은 부서지고, 새롭고 생산적이며, 주도적인 고유한 형식이 생겨나서, 삶의 소재들을 스스로 속에 채우고, 삶은 그 형식의 뒤를 따라가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게 된다(Simmel, 1918: 38). 그러므로 삶과 형식은 항상 변증법적 긴장관계 속에서 놓여있게 될 수 밖에 없다. 짐멜에 의하면 인간이란 곧 스스로 극복되어져야만 되는 어떤 존재인 데(Simmel, 1918: 7-27), 이

는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 자신 스스로를 문화화의 대상, 즉 스스로 문화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윤리'나, '도덕', '규범' 등을 통해서 스스로를 문화화 시킨다.

사회란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활동공간이며 상이한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Gebilde)이다. 결혼이주민은 사회·문화적 경계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상(Bild)을 획득하고 변형시키며, 현실을 재구성하게 된다. 결혼이주민은 이처럼 '가치나 의미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삶의 새로운 형식이 필요한 존재이며, 고정된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경계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경험들을 내적으로 배열해나가는 역동적 속성을 지닌 존재이다.

결혼이주민은 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사이에서 동화 또는 부적응이라는 양극적 현상들을 가장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집단이다. 세계화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고정적 삶의 양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문화적 접촉은 새로운 경험과 욕구를 생산하여, 결국 사람들의 삶은 빠르게 변해간다. 이처럼 삶의 지평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세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인간의 욕망은 이전의 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불변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은 자본과 다양성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사회·문화적 동기나 스스로의 내적 동기에 의해 이주한 자율적 존재로 삶의 형식적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내의 제도와 윤리, 생활양식이라는 형식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사회갈등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화되면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게 된다. 물론 이들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소통은 이전의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이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삶의 형식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철학적 범주 내에서 결혼이주민은 혼인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이동한 존재인 동시에 이전까지 견고하던 그들 자신의 삶의 형식이 모호함과 혼종 속에서 때로는 불안한 실존 속에서 두 사회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이상의 삶의 형식을 준비하는 존재인 것이다.

5. 생애구술사를 통해 본 주변인으로서의 이방인

아래의 인용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을 인터뷰한 것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김태원, 2012a). 인터뷰 여성의 상세한 개인적 소개는 본 연구에서는 서술되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옮겨 왔음을 미리 밝힌다.

아래는 10년 전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다, 그 당시 아직 한국사회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많지 않을 때이므로 한국사회에서 눈에 띄는 이방이었을 것이다. 초기에 이 여성은 낯선 한국사람들과 접촉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어디 사람 이세요?"라는 아래의 질문을 통해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일상 특히 제한된 가족의 영역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출신이 어디라고 하는 지역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의 사례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사회로 이주해 왔을 경우 누구나 접하게 되는 현상이다. 한국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이 주변인으로 머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는 언어적 소통부재로 인한 관계망의 형성 부족이다.

–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말 안하면 다른 사람들은 한국사람인 줄 알아요. 말하면 "아~ 어디 사람이세요?" 하고 물어요. "저 한국사람인데요!" 하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 안 하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외국사람인 줄 잘 몰라요. 좀 알고 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디 사람이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와서 열심히 살고 평범하게 살면 되지. 외국사람이라서 그런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많이 느꼈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는 어린이집에 가도 어머니들 모임이나 행사에 가면 알잖아요. 자기들도 다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한국 사회가 어떤지 모르니까, 지금은 적응을 해서) 거의 어려운 것도 별로 없고 모르면 물어보면 바로 설명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는 말이 안통해서 자주 밖에 안갔어요. 한동안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내가 밖에서 뭐를 물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답해주고 설명해주어야 하는 지 겁나고, 신경쓰였을 거예요. 입장 바꾸어보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베트남 D, 29세).

오늘날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초국적 이주라는 개념 하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주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민족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경제적 동기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지리, 정치적 영역에 고루 확산되면서 더 이상 국민국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아래의 사례도 결혼이주의 경제적 측면이 잘 드러난 경우이다. 원주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했다는 일반적 사고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지역에서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베트남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소였다. 특히 그 지역 베트남 여성의 부모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딸 중 53%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한다고 말하였다(Hoa, 2014; Loan, 2014).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이처럼 경제적 요소와 연관된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잠정적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변인이자 타자인 베트남 여성은 두 사회의 문화적 경계 위에서 이중정체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 주위 사람들의 반응, 나는 아직도 이방인 인가?

지금은 밖에 나가도 거의 말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저보고 예쁘다고, 잘 왔다고 칭찬 많이 해줬거든요. 이말 듣고 나서 잠시 시장에 나갔는 데, 그 시장 사람이 저보고 "그 애가 돈 때문에 왔다.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 싫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저는 그런 목적으로 온 거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내보고 "외국사람이라서 가난하다"고 하고, 이거 "돈 때문에 왔다"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냐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돈벌기 위해서 한국에 결혼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 당시는 외국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돈 때문에 왔다 그 집에 누구누구 며느리라고 동네 사람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로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도 물어봐요. "니 장가가는데 돈 얼마나 들었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거든요. 돈많이 들어갔느냐고, "처갓집에 돈 많이 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치겠대요, 처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열심히 살아서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어요. 어디 나가면 돈 때문에, 피부 때문에 그랬고.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갈거라는 그런 소리도 나가고, 그랬어요(베트남 D, 29세).

이 결혼이주여성은 10년 이상을 한국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스스로는 이제 충분히 한국사회에 적응한 '베트남 생각이 안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부터도 해방되었고, 자녀 양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간됨의 과정을 모두 체험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 여성의 경우 이제 이방인이라기 보다 한국사회의 중심부에는 비록 속하지 못하지만, 한국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세계를 구성한 여성이다.

– 베트남 생각은?

지금은 생각 안 나요. 내가 살기도 바빠요(웃으며).

저 친구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한두 달 갔거든요. 한국 오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살더라도 베트남이 많이 그리워서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지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고요 "니는 요기가 집이고 애들 둘이 있고, 나중에 니 지금 열심히 벌면, 나중에 니가 베트남에 2년, 3년 갈 수 있잖아" 무슨 걱정이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베트남 갔다 오니까 한국 안 오고 싶다고 해요. 베트남에는 온 가족들이 있지만, 한국 오니까 신랑도 일하러 나가고, 애도 어린이집에 가니까 지는 맨날 집에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베트남 D, 29세).

필리핀에서 온 이 결혼이주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다름'을 경험한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노년층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전통가치라는 척도로 이방인을 비교하고,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치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문화적 차이는 문화의 변동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다른 문화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함으로 문화적 경계가 점차 완화될 수 있다.

– 변화와 적응

처음에 여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동네에서 이 집에 필리핀에서 며느리가 왔더라 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안 묻고 그냥 얼굴이 까맣구나 생각하고 피부 엄청 까맣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은 편인데, 처음 봤을 때는 아우, 피부 너무 까만 거 같다. 이게 노인들 얘기했는가 봐요. 알고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노인들 계속 오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인데 이제 어머니 어머니 말 왜 그렇게 많은가 싶어가지고. 그래 막 손님 막, 아이고 오늘 잘 왔구나. 그런 얘기 하고 있는가 봐요. 할머니들은. 그래가지고 조금 까맣다 이러더라고요 시어머니. 근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그때 겨울이니까, 어머니랑 목욕탕에 갔는가 봐요. 근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옷 좀 갈아입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잘 몰라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또 얘기했는데, 잘 안되니까. 그렇죠 그냥 가자 이래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갔어요. 속옷 이만한 거 가져와 가지고 저기 가방 놔두고요 막 갔어요 목욕탕 안에서. 근데 목욕탕에 갔는데 어머니 왜 옷 벗는가 싶어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옷 벗어야 돼?" 저 몰라요(필리핀 J, 35세).

위에서처럼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음에도 이 여성은 한국사회라는 공간적 이동이 자신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다. 20년 간 필리핀에서 살아온 시간 보다 한국 사회에서 지낸 5년 정도의 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이중–, 또는 다중정체성을 가

진다고 말한다. 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내면에는 여전히 필리핀에 대한 기억과 지난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동화란 모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롭게 이주국이 문화적 요소로 내면을 채워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2013년 7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47,591명의 결혼이주민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 혼인귀화자, 기타 국적 취득자를 합하면 281,295 명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름과 차이를 경험하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모국의 정체성을 버리고 동화되어 살아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들의 생활양식은 한국사회에서 다름과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다름과 차이가 모호해지는, 다름과 차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다름과 차이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사람 아닌가요? 선택하라고 하면, 한국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은 하지만 항상 필리핀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까지 20몇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필리핀에선 제사 안 지내는데, 어우 우리 세 번이나 일 년에 세 번 제사 지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궁금한 거, 제사 밤 12시에 지내야 된대요. 근데 남편이 일어나야 된대요, 그때. 왜 일어나야 돼?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거 몰랐어요. 내가 잤어요. 잤는데 근데 남편이 10시, 12시 정도 되니까 깨우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아주버님들 다 왔다고. 이래가지고 뭐하노? 제사 있는데, 무슨 제사야, 제사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하나 싫어가지고. 아, 그 정도는 힘들어요.

근데 설날 같은 때에도 보면 우리는 절하잖아요. 이상하죠. 절하는 거랑. 처음에 또 시집 왔으니까 이제 1년 되는 명절 날 때는 시어머니한테 절해야 된대요. 왜 또 해야 돼? 궁금해서 왜 꼭 해야 되냐고. 원래 제사 같은 거랑, 명절 같은 거랑, 시부모님한테 절해야 돼. 또 한복 입는 것도 불편해요(필리핀 J, 35세).

아래의 여성은 중국 한족으로 연애결혼을 한 후 한국으로 와서 딸을 1명 두

고 있다. 모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중류층 이상의 여성으로 모국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온지 2012년 당시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적 가치체계를 가진 외국인으로 자신을 스스로 평가 한다. 위의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한국이라는 다른 생활세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결혼이주여성은 비록 공간적 전이는 이루어졌지만 문화적 이질성은 여전히 내면에 지니고 있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생활세계에 속해 있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녀 교육이다. 이 경우 자신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여성의 경우는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주변인으로 생활하지만, 자신의 이방인적 존재감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사람이라고 생각되는지. 누군가 나에게 한국사람인가 중국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중국사람이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죠. 10년 이상, 15년 이상 살면 몰라도 제가 지금 4년이거든요. 아직 외국인 맞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이지만 한국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직 많이 안됐으니까 그런가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때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 나는 이방인

그냥 아이한테는 사실을 알려줘요. 엄마는 중국사람이야. 아빠는 한국사람이야. 일부러 숨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씩 저한테 뭐 물어볼 때, 한국말로 이거 뭐에요?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외국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발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어 발음 좋지

않아요.

지금 그냥 주변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나는 결혼위해서 이주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을 못 할 때는 조금 느껴져요.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죠. 아 혹시나, 외국사람이라서 얘기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은 말을 좀 알아 듣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서 그렇게 차별은 느끼지지 않아요(중국 Y, 35세).

6. 맺음말

모든 사회구성원은 동물과 같은 군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집단 안에서 규범체계를 만들고, 삶의 지향점인 가치체계를 만들어 공유한다. 이러한 세계를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며, 제2의 자연, 문화의 세계라고 부른다. 문화의 세계는 본능 지향적 생존의 세계가 아니라, 조작되고 변형된 세계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 태어나면서 경계를 지니게 된다. 시간적,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아니면 사회적 계층, 성별, 인종 등 수 없이 많은 경계 속에 서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경계를 가지되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동물처럼 경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경계 위에서 있으면서 주어진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곧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맞게 바꾸려하는, 즉 자연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해체하고 조작하여 문화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결혼이주민이 정착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한 이후, 1990년에 들어서면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그 이후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결혼이주민이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고, 이러

한 결혼이주민의 대거 유입은 이들을 다문화정책의 중심점에 놓여지게 하였다.

2013년 기준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은 안전행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75만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28만명, 배우자 28만명, 자녀 19만 명에 이르며, 결혼이민자는 약 15만여 명 정도 이다. 통계청의 인구통계를 보면 2013년 1월 전체 인구 50,948,272명 중 외국인주민의 수가 2,8%인 1,445,631명이며, 체류 외국인의 약 10%는 결혼이주민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그 자녀만 보았을 때, 인구구성상 34만 명 정도이며, 실제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구이다. 이들로부터 한국사회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치적 관점에서 이들은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하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짐멜의 이방인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미국사회의 이주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파크(R. Park)는 짐멜의 이론을 미국사회에 적용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명 이었다. 하지만 초기 미국의 이주민 연구는 결국 이주민의 주류사회로의 동화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슈츠 역시 이주민으로서 이방인의 사회적 적응과정은 내부그룹, 즉 주류사회로의 동화로 귀결된다고 보았다(Schütz, 1944). 이러한 초기 미국의 이민연구 경향은 다양한 문화들을 주류문화 속에 편입시켜 동화시킨다는 미국의 '용광로 이론(melting pot)'에 적합한 것이었다.

유럽의 경우도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가치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0년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치적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배경에 의한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한 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병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일이다. 이들 국가는 문화적 공존이 사회통합에 적절하지 못하며, 이전의 동화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곧 자국의 가치를 이주민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획득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안

으로 이주민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사회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은 일방적 동화의 대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민은 이방인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은 이들이 경계인인 것과 같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영원한 이방인이 아니라, 잠재적 이방인이다. "잠재적 방랑자" 로서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는 이질적 요소를 가진 존재이지만, 이질적 요소의 혼종(Hybridity)에 의해 동질화 되어가는, 삶의 새로운 형식을 생산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삶 이상의 삶이라는 곧 기존의 삶의 형식이 와해되고, 새로운 삶의 형식을 생산하는 존재이다. 새로운 삶의 형식, 새로운 생활세계의 형성은 곧 다문화적 혼종의 결과이다. 결혼이주민은 이주를 통해 항상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과 경험은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세계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즉 이주민은 이주국으로 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받는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적 존재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의 문화지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문화변동자일 수도 있고, 잠재적 문화생산자이자 매개자인 것이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민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접촉과정에서 가치의 충돌 또는 융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단일문화, 단일민족임을 주장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경험은 가치의 혼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요인들은 다문화가족 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탈행동, 내적 갈등, 연대의식의 약화, 사회해체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이주민의 이주동기는 일반적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와 경제적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 동기는 개인의 내적 의지의 결과이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취향과 의욕, 의지, 욕구 등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이러한 전체적 욕구의 반영을 욕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민의 이주는 바로 이러한 '욕망의 공간적 이동'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의 경제적 동기 이면에는 삶의 진보를 원하는 개인의 욕

망이 내면에 상존해 있다.

공간은 물리학적 의미에서 보면 '아무 것도 없는 비어 있는 빈 곳'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빈 공간에 의미나 가치체계 같은 문화적 요소가 있을 리가 없다. 독일어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라움(Raum)'이고, 'Raum'의 동사는 '로이멘(räumen)'으로 "자리를 새로 만들다, 비우다, 자유롭게 만들다, 떠나다, 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림 사전(Grimmsche Wörterbuch)에는 'räumen'이 "경작이나 이주할 목적으로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빈 터를 만든 하나의 공간"을 의미한다(슈뢰르, 2006: 29). 그러므로 철학적으로 본다면 공간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즉 문화적 지향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 속으로 새로운 의미가 삽입되고 충족되면, 기존의 사회공간 역시 변형되고, 새로운 공간이 형성된다. 결혼이주민의 역할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와 가치체계를 기존의 공간 속으로 이식시키고 규범화 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개인도 그 생애동안 동일한 삶의 의미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공간은 개인에게 욕구를 생산하게 하고 조절하게 하며,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며 타인의 욕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곳이기도 한다. 즉 공간은 경계지어진 곳이며, 동시에 경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곳이다.

브라(A. Brah)는 하나의 이주공간이라는 것은 이주자 집단들의 거주로부터 구성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이주공간은 그 지역의 토착민과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되는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주 공간은 원주민이 이주자가 되고 이주자가 원주민이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이다(김태원, 2012b). 브라에게 있어서는 동질적 정체성이나 정체성의 차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체성의 동질성과 차이는 사회 속에서 항상 재구성되고 그들의 역사적 문맥에서 재조직화된다.

이방인은 그가 새로이 머무는 공간에 단순히 머무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의 촉발자"이자, 문화적 혼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인물이며, 새로운 "초국적 사회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을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이들은 일상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이되, 새로운 세

계의 지평 위에서 사회의 가치를 생산하고 객관화시키는 이질성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가치생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공간을 형성하는 타자와 원주민 사이의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한 것은, 두 문화 또는 그 이상의 사이에서 생성되며, 개인의 정체성 역시, 이러한 사회가치와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것이 문화의 상호호혜성에 바탕을 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다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결혼이주민의 공간적 경계를 지나는 이동은 기존의 행위 틀을 와해시키는 행위이다. 정주를 시작하면 그 공간은 개별자로서의 한 인간과 더불어 문화적 이질성에 노출된, 이방인으로서 그 공간의 경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결혼이주민은 이주국에서 가치의 변동을 유발 시키는 잠재적 가치의 생산자이며, 공간의 변형자이다.

2014.4.27 접수, 2014.6.18 수정, 2014.6.29 게재확정

참고문헌

김동엽,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2), 31-72.

김태원, 1999, 문화로 이르는 길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한국사회학, 제33집 겨울호, 883-915.

김태원, 2011, 한국적 다문화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 인문과학연구, 16, 57-81.

김태원, 2012a,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경인출판사.

김태원, 2012b,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9, 179-213.

박인철, 2006, 생활세계와 의사소통 –후설과 하버마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연구, 31, 1-33.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최병두 외,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지리학: 연구동향과 주요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65-97.
최병두,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13-36.

Loan, Nguyen Hoi, 2014, Demand and Motivation for getting married with korean men, 2014, Ins and Outs of Mig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0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45-54.

Hoa, Nguyen Thi Kim, 2014, The role of capital social capital in decision making of vietnamese women for their international marriage with korean men, Ins and Outs of Mig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0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55-72.

Schroer, Markus, 2006, Räume, Orte, Grenze, Suhrkamp.

Simmel, Georg, 1918, Lebensanschauung. Vier metaphysische Kapitel, Muenchen und Leipzig.

Simmel, 1957, Vom Wesen der Kultur, in: Brücke und Tür. Essays des Philosophen zur Geschichte, Religion, Kunst und Gesellschaft. Im Verein mit Margarete Susman, hrsg. von Michael Landmann, Stuttgart, 86-94.

Simmel, 1983, Der Begriff und die Tragödie der Kultur, in: ders., Philosophische Kultur. Uber das Abenteuer, die Geschlechter und die Krise der Moderne. Gesammelte Essais, (zuerst 1923), Berlin.

Simmel, 1992, Exkurs über den Fremden, in: Simmel, G, 1992, Soziologie, Suhrkamp, 764-771.

Schütz, Alfred, 1944, “The Stranger: An Essay in Social Psych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9(6).

Life World and Married Immigrant as a Stranger

Tae-Won Kim*

Abstract_A study on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e is to be approached from the diverse scientific perspectives. On the early 1990's when the researches of mulriculture was started, the interests of researches were focused on more cultural diversity than multicultural phenomena like these days or it was approached from educational interests. Since then, the researches about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and married immigrants were produced in different scientific areas. Many of recent researches are interested in social conflict or adaptation and identity.

This study aims to study married immigrant on the micro perspective. And this study understand married immigrant as a stranger who is a marginal individual and try to grasp that they as value agency and potential value producer could change cultural configuration.

G, simmel's theory of stranger was referred as a theoretical frame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d that married immigrants play a role of important existence for value change in Korean society.

Keywords_married immigrant, stranger, marginal man, life world, space

* Daegu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Sociology, taewonart@gmail.com